

# 전북대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 개관

오늘 개관 기념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술행사·다채로운 문화공연 마련...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

전북대학교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했다. 옛 학군단 자리에 연면적 6,008㎡의 지하2층, 지상1층 규모로 대형 컨벤션홀 1관, 세미나실 9관을 비롯해 커피숍과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지하2층에 자리한 대형 컨벤션홀은 한 번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로 조성돼 국제 학술행사 개최 등이 가능하고, 또 지하층에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시관 및 실습공간을 마련해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특히 전북대는 국제컨벤션센터의 개관에 앞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

구하기 위해 관련 정책연구도 진행했을 만큼 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에 공을 들여왔다.

이에 국제컨벤션센터의 개관을 기념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술행사와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한마당을 개최한다.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자가진단키트를 무료 배부해 자가진단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입장 가능하다.

24일 오후 1시부터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행사는 기후변화 위기 속 탄소중립을 통한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주제발표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음악과와 무용학과, 한국음악학과

가 마련한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한국무용 등의 다채로운 공연 행사도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을 찾을 수 없는 지역민을 위해 행사는 유튜브(전북대학교 - YouTube)를 통해 생중계 된다.

김동원 총장은 "그 동안 마땅한 장소가 없어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웠던 전주시의 복마름을 이번 국제컨벤션센터의 개관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덕진공원과 연계해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 예약의 분고장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일상 속 문화힐링' 군산예술의전당 기획프로그램 풍성

뮤지컬·발레·체험전시 등 추진

군산예술의전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충실한 방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살리고자 작년 한해 대형 뮤지컬 '광화문 연가'를 운영해 전석매진을 기록했다.

또, 영리한 빛의 화가 '모네와 인상파전'을 현장관람은 물론 온라인 전시관을 진행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이밖에도 국립공모사업 공연 4건, 기획공연 8건, 교육사업 1건 등을 운영해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갔다.

올해 기획프로그램은 일상 속 힐링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뮤지컬, 발레, 체험전시 등 (20여회) 기획공연·전시를 추진한다.

2월에는 겨울방학을 맞아 특별 기획전시로 AR(증강현실) 트리아이전을 한달간 무료로 진행한다. 3D 작품에 증강현실을 적용해 입체적으로 보여 생동감을 높인 전시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시다.

3월에는 싱그러운 봄을 맞아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 김호영, 손승연, 양준모의 갈라 콘서트인 '비온드 더 뮤지컬'을 대공연장에 올릴 예정이다. '비온드 더 뮤지컬' 명작뮤지컬 남버들로 구성된 콘서트로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보디가드의 주옥같은 노래를 만나볼 수 있다.

4월에는 정제된 맑은 음색, 심오한 서정성, 빼어난 기교로 칭송 받는 첼로의 음유시인 켈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군산 최초 내한 공연으로 기대를 모은다. 5월에는 코로나19로 취소돼 많은 관객들이 아쉬워했던 유니버설 발레단의 대작 '돈키호테'를 올릴 예정이다.

예술의전당은 하반기에도 지역예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공연과 대형 뮤지컬 공연 및 송년 콘서트 등을 통해 시민들이 풀다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적극적인 국비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및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는 감성교육 등에 응모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에 힘을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대 음악과, 전문 인재 양성 협력·혁신적 음악 발전 방향 모색 포럼 개최

전라북도음악분과협의회와 교육교류 협약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와 현대음악연구소는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전북음악학원연합회 주관으로 '혁신적인 음악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및 '교육의 질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교류협약식'을 개최했다.

군산 라미다호텔 2층 갈라홀에서 23일에 개최된 이 행사는 전라북도음악학원연합회(전라북도음악분과협의회)와 군산대학교와의 교육교류 협약 체결에 이어, 음악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으로 이어졌다.

협약의 골자는 교직원 및 학생 등 상호 인적 교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상호 적극 지원, 상호 협력에 의한 예비 강사 교육 및 강사풀



운영, 학술정보 및 자료의 공유이고, 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음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후에는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회장인 정안규 교수의 '시대가 요구하는 음악교

육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정안규 교수는 특강을 통해 "피아노 연주에서 테크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테크닉의 향상을 위해서는 음악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듣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음악교육자의 역할을 테크닉과 음악의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전라북도 음악학원연합회와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음악과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전라북도 학원연합회 유예선 회장, 변자연 교육이사, 신진민 총무이사, 군산대학교 음악과 양희정, 박규연, 김준, 최명훈, 정혜연, 이현주, 이재식 교수가 참여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한복, K-POP · 첨단기술과 만나다

미국 워싱턴한국문화원서 '한복 웨이브' 개최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특별전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워싱턴한국문화원은 오는 3월 25일까지 한복 특별 전시회 '한복 웨이브(Hanbok Wave)'를 워싱턴한국문화원 1층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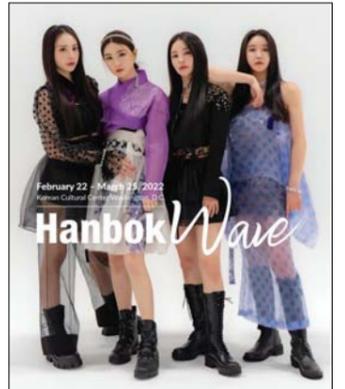
'한복 대중화'와 '한복 세계화'를 목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복, K-POP, 첨단기술, 예술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다.

K-POP 스타 한복 전시와 디지털 패션쇼를 선보이는 'Hanbok meets K-POP'에는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와 보이 그룹 '다크 비'가 입은 현대적 스타일의 한복 10점이 특별 전시된다. 이 스타들이 직접 한복을 입고 출연하는 디지털 패션쇼도 대형 프로젝터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첨단 미디어 기술을 통해 한복을 보여주는 전시 'Hanbok meets Technology'에서는 인스타그램 유명 인플루언서인 한국 최초 가상인간 로지가 한복의 새로운 트렌드와 패션을 소개한다. 로지의 인스타그램에서 로지의 한복 입은 모습과 함께 패션과 뷰티에 관한 일상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전시회 방문자들이 모바일 증강현실(AR)을 이용해 가상으로 한복을 입어볼 수 있다. AR 한복 착용 체험 후 이를 소셜미디어(SNS)에서 게시하면 현장에서 즉석 선물도 받을 수 있다.

3번째 전시 'Hanbok meets Art'는 한복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한국 최고 한복 아티스



한복 특별전시 브로셔.

트들이 K-POP, 한국무용, 태권도 퍼포먼스 등 한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함께 한복의 의상을 창작했다. 전통 한복에서 현대적인 한복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한지를 활용해 표현한 작품의 전시도 만날 수 있다.

그 외 문화원 전시장 1층에서는 한복이란 무엇인지, 한복을 어떻게 입는지 등 한복을 배울 수 있는 영상물과 자료도 만날 수 있다.

한복 옷맵시 사진공모전, 문화원 전시장 방문 이벤트, 현지 한국문화 애호층 초청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 콘진원·구글·네이버, '웹툰 기반 게임' 제작 나선다

'글로벌 웹툰 게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구글플레이, 네이버웹툰은 웹툰 IP 기반 게임 제작 지원, 일명 '글로벌 웹툰 게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글로벌 웹툰 게임스'는 플랫폼 기업과 중소 게임사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게임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게임 제작지원금 지급 및 운영(콘진원) ▲웹툰 IP 사용 및 국내 마케팅 지원(네이버웹툰) ▲구글플레이를 통한 출시 지원(구글플레이) 등이다.

콘진원은 전국 11개 지역 글로벌게임센터와 함께 우수한 중소 개발사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업무로 업체 선정, 개발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사후 프로모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네이버웹툰은 중소 게임사의 웹툰 IP 사용 및

국내 마케팅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될 웹툰은 ▲노블레스(손제호·이광수) ▲돼지우리(김진비·천범식) ▲레사(POGO) ▲마음의 소리(조석) ▲사신소년(류) ▲스피릿킹거스(한경철) ▲오늘도 사랑스럽개(이혜) ▲외모지상주의(박태준) 등 총 8작품이다.

높은 대중성과 해외 인지도는 물론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2차 사업으로도 성공한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 일상 등 다양한 장르의 유명 웹툰이 고루 포진돼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게임은 구글이 운영하는 글로벌 앱마켓 플랫폼 구글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 수십 억 명의 유저와 만날 수 있게 된다.

콘진원은 다음달부터 참가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최종 5개사를 선발, 2023년까지 업체당 최대 6억원의 개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뉴시스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